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10월 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 개최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10월 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9월 18일 개최된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명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신구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노진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등 건설산체장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한경 국토교통부 인력기재과장 등 정

부인사를 비롯하여 수상자 가족 및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건설산업이 세계5위권의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현장에서 땀흘리는 여러분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수상자들이 야말로 건설산업과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역군들이며, 투철한 장인정신과 성실 시공에 대한 강한 의지는 후배 기능인들에게도 귀중한 모범이 될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건설인력 양성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건설기능인 여러분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으면서 경제를 일으키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신구 상임부회장은 기계설비부문 입상자들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기계설비 시공을 위해 더욱 정진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수상자 중 우리협회 추천 참가자 중 배관 부문에 최철웅[(주)세영이엔지], 김현재[(주)정우이엔지], 지용일[대산이엔씨(주)] 씨가 입상했으며, 전기용접 부문에는 조승익[혁성실업]

(주), 황태익[성우설비(주)]씨가 입상했다.

이번 대회 수상자 64명 전원에게는 해당직종 기능사자격시험 면제 혜택과 함께 상금,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됐고, 해외 산업연수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직종별 1위 입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함께 전국 기능경기대회 본선 참가자격을 부여된다. 

▼ 기계설비부문 입상자 명단

| 직종   | 순위 | 성명  | 소속회사     |
|------|----|-----|----------|
| 배관   | 1  | 최철웅 | (주)세영이엔지 |
|      | 2  | 김현재 | (주)정우이엔지 |
|      | 3  | 지용일 | 대산이엔씨(주) |
| 전기용접 | 2  | 조승익 | 혁성실업(주)  |
|      | 3  | 황태익 | 성우설비(주)  |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기계설비부문(배관) 입상자 기념촬영 (사진 왼쪽부터 강신구 상임부회장, 배관부문 1위 최철웅, 배관부문 3위 지용일, 배관부문 2위 김현재)

## 기계설비분야 수상자 소감 한마디



배관 부문 1위 / 최철웅 (주)세영이엔지

회사에서 입상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권유해서 참가하게 됐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능공으로 근무했는데 이번 대회 입상이 실력점검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시공 전에 철저한 도면을 분석한 것이 정밀시공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향후 다른 분야에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배관 부문 2위 / 김현재 (주)정우이엔지

실력점검을 위해 참가하게 됐는데 2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평소에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밀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품질향상 방안을 더욱 연구해 장인정신을 갖춘 건설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배관 부문 3위 / 지용일 대신이엔씨(주)

지난 25년 동안 설비부문 기능공으로 일해 왔는데 한번쯤 실력을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평소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시공을 꼼꼼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분을 지키자'는 신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으며,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타종목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전기용접 부문 2위 / 조승익 혁성실업(주)

용접분야에 종사한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옆에서 믿음과 활력을 주는 가족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용접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서 기능장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싶고, 향후에는 후임을 양성하는 지도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전기용접 부문 3위 / 황태익 성우설비(주)

이번 대회를 통해 실력을 점검할 수 있어 큰 경험이 됐고, 대회장에 와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응원해준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8회 때 배관 3위를 했는데 이번 전기용접 분야 도전에도 3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1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